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이경아<sup>1</sup>, 손희원<sup>2\*</sup>

<sup>1</sup>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sup>2</sup>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Kyung A Lee<sup>1</sup>, Hee Won Son<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Suwon Woman's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Suwon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호남권 등의 대학생 171명이다. 언택트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 이전에는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이, 코로나 이후에는 '학업적응'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역량', '정보통신역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핵심역량요소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연관성 분석결과, 코로나 이전, 이후 모두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에는 학업적응의 어려움과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역량 강화, 학업적응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역량 강화 등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코비드 19 사태, 대학생,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비대면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college life adaptation support measures at the college level by identifying college life adaptation status, the relevance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the core competencies.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re are three objectives.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71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and Honam.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uncontact questionnaire,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for mean,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 difficulty of "emotional adaptation" before the coronavirus was high, and the difficulty of "academic adaptation" was high after the coronavirus. Second,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were highest in the order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problem solving competenc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etency'.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y factor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ifficulties in social adaptation were found both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After the corona,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chool and learning new skills appeared. In conclusion, in order for university students to adapt to university life in the post-corona era, university-level support is needed to reinforce interpersonal relations competencies in uncontact situations, reinfor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ies to promote academic adaptation, and reinforce new skills acquisition competencies.

**Key Words** : Covid 19,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core competencies, uncontact

\*Corresponding Author : Hee Won Son(choicey@swc.ac.kr)

Received March 24,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y 3, 2021

Published Ma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장 큰 혼란과 변화가 일어난 영역 중 하나가 교육현장이다[1]. 특히 대학은, 2020년 한 해 동안 갑작스러운 원격교육 중심의 수업 운영과 대학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캠퍼스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학 생활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원격교육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담보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업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이란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한 의미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신이 속한 대학과 대인관계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은 입시 준비 위주의 고등학교 생활과 완전히 다른 교육환경에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적응해나가야 한다[3].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학업성취, 사회적응과 심리적 성숙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4]. 또한 대학 생활은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5].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나 대학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대학환경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학업중단으로 이어졌다. 2021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의 '중도탈락현황'은 4.6% 총 9만 2607명으로, 2017년 4.1%, 2018년 4.2%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히 달라진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가 대학생 개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좌우된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까지 맞물려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미래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6]. 그러므로 대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7]. 이를 위해 대학은 교육 패러다임을 핵심역량기반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핵심역량이란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성

과와 성공 및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특성으로, 특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9].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포함되며 지적능력, 인성,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10]. 핵심역량은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11]. 대학생으로 획일화된 사고를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 대학 수업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어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 생활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학 차원의 대학생활적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대학생활적응 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1.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언택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회피, 방어 등을 사용하여 답변이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언택트 설문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및 다양한 온라인 설문방식과 제 3자의 관찰 보고 등 다차원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도, 호남권 대학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환경

포스트 코로나란 포스트(Post)와 코로나(Corona)의 합성어로 코비드19(COVID-19) 팬데믹 발생 후 도래한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접촉이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원격진료, 언택트 소비부터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2019년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활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비드 19 발생 초기에는 초유의 사태로 교육부나 대학 모두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각 대학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며, 비대면 교류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빈약한 상호작용이나 소통의 어려움 또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학시설물 폐쇄조치로 캠퍼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등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경험의 공간과 교류의 장 또한 사라졌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대학의 교육 활동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험, 실습, 실기 수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교육이 주가 되었으며, 밀집과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한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등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온라인수업 관련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학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대학구성원의 온라인 교육 관련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학생활적응에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아직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2 대학생활적응

적응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욕구와 환경적 요구가 조화를 이루고, 환경변화에 순응하여 자신이 변화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환경을 개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2].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고 대학문화 및 생활을 영위하며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히 대처함을 의미한다[13]. 권선주(2018)는 대학생활적응을

대학 생활이라는 환경에서 개인이 변화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14].

김정희(2007)는 대학생활적응 요인으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15].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을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한 의미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신이 속한 대학과 대인관계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6].

Baker와 Siryk는 대학생활적응 요소로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안정,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등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업 동기, 인지적 학습능력, 학업 요구에 대한 반응 행동, 학업환경과 관련한 만족감, 시간 관리, 분명한 목적의식 등이 주요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의 적응으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지원 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 관리능력, 교수 및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들의 상호관계,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으로 개인의 인성 형성에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한 적응을 의미한다. 넷째는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 만족도,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적응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개인 내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신이 속한 대학과 대인관계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갖는 것을 의미 하며 그 적응 요소로는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안정,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등이 포함된다.

### 2.3 대학생 핵심역량

핵심역량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초점을 맞춘 역량과는 달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주요 역량을 의미한다[9]. OECD[17]에서는 역량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적인 고차원적인 능력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수행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생 역량 측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학업 역량(학업 기초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사고력, 창의력), 자기관리 역량(신체 건강, 정신건강, 생활 관리), 진로-직업역량(진

로 설계, 진로-직업탐색, 직업수행역량), 대인관계역량(공감력, 의사소통력, 갈등 해결력, 협동력), 시민역량(사회참여역량, 공동체성, 국제적 역량) 등 총 5개 영역을 제시하였다[18].

2015년에 개정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종합적 사고력,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글로벌 역량' 등 총 6가지이다[20].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체계적 측정을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Assessment)이 활용되고 있다[21]. K-CESA는 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되어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능력 및 지원-정보-기술 등 활용능력을 제시하고 있다[18].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토대로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 역량, 글로벌 역량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핵심역량은,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역량 등으로 미래사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미래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문제해결역량은 학생이 교수-학습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다[9]. 둘째, 대인관계역량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집단 활동 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을 활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2]. 셋째, 정보통신역량은 많은 정보 중 찾아낸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법적·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디지털 능력과 더불어 건전한 정보 윤리의식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23].

핵심역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4 대학생 대학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2.4.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신숙(199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생들의 동기로 나타났으며[24], 김성경(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경험하는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5]. 김효원(2004)의 연구에서는 진로에 확신이 없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때, 학업과 사회적응, 개인-정서 적응 측면에서 적응 정도가 낮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 대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박영희, 박은민(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대학생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7].

이은우(2005)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실현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28]. 최바울(2006)의 연구에서는 일상 스트레스가 낮고, 적응 유연성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하정희(2006)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학생은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낮음을 밝혀냈다[30]. 이지선(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조화진과 서영석(2010)은 성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며[32], 이정선(2012)은 정서조절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33].

김진희(2012)는 대학생활적응에 자기효능감, 자아 정체감,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가족 응집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34]. 차선경(2013)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력은 자아존중감,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박정아(2019)는 대학생활적응은 자기효능감, 자기 탄력성, 유머 스타일, 교수-학생 상호작용, 갈등 관리 유형, 가족 의사소통 유형, 개인-전공 적합성,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여러 요인이 관련 있음을 밝혀내었다[36].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을 경우,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잘 충족시키며 대인관계에서도 효능감을 가지며, 더 나아가 대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37]. 반면 대학생활적응도가 낮을 경우, 불안, 우울감, 정체감의 혼란, 관계상의 어려움 등을 초래한다[38]. 대학 부적응은 중도탈락으로 이어져 인적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대학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났다[39].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코로나 이후 대학생 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4.2 대학생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 핵심역량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핵심역량 규명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40]와 역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연구[41], 그리고 핵심역량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대학생 역량 진단 도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가 대표적이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만들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의사소통역량, 글로벌 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종합적 사고력의 인지적 영역과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의 비인지적 영역 등 구성 요소들에 대해 평가한다[42]. 이후 대학 차원의 진단 도구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43].

역량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연구로, 고영지, 엄주연, 김현실(2018)은 액션 러닝 기반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44], 윤희정, 정윤숙, 공성수(2018)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45].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애 핵심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46],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47]. 전공계열에 따라 핵심역량의 차이가 나타났으며[46],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다[48]. 핵심역량과 교수, 학습 과정 변인에 대한 윤희정 등(2018)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교수자와의 교류 등이 핵심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9]. 김안나, 이병식(2003)은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있어 학습자 개인의 배경 요인보다는 교육 경험을 통해 투입되는 환경적 변인이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50].

대학생활적응과 대학 만족도 핵심역량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유미, 가신현(2012)의 연구에서는 리더십, 도덕성, 대인관계능력, 책임감 등의

핵심역량이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51]. 장수연(2016)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고,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52]. 이창익 등(2012)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제시하였다[53]. 박레이(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역량으로 감성역량, 자기정체성 역량을 제시하였다[54].

이렇듯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 2.4.3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성미(2020)는 코로나19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55], 강미선 등(2021)은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56]. 이종만(2020)은 코로나19 원격교육환경에서 유튜브를 과다 사용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 학업 적응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57].

이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활 관련 연구는 현재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생활적응과 핵심역량 관련 연구 또한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기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 생활을 모두 경험해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성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171부(90%)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구글앱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에 대해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url로 링크하여 작성한 내용은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활용한 뒤 폐기처리 할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 3.3 연구도구

#### 3.3.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Baker와 Sirky(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검사(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999)이 수정, 보완한 대활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는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5가지로 구성되었다[58].

본 연구는 이윤정(1999)의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는 ‘학업 적응’ .766, ‘사회적응’ .795, ‘정서적 적응’ .751, ‘신체적 적응’=.776, ‘대학에 대한 애착’ .693로 나타났으며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Table 1. Item composition of measuring tool for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	Sub-variable	Number of questions	Item composition
Adjusting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5	5,7*,9*,13,25
	Social adaptation	5	2,11,14,18*,23
	Emotional adaptation	5	3*,8*,17*,22*,24*
	Physical adaptation	5	4*,10,12*,16*,19
	attachmentfor college	5	1,6,15*,20*,21*
	Total	25	Cronbach’s $\alpha$ =.83

\*Questions are inverse points

#### 3.3.2 대학생 핵심역량

대학생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해 2009년에 개발된 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척도를 김기홍(2019)이 수정, 보완한 핵심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기홍(2019)은 대학핵심역량을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역량, 문제해결역량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3이었다[59]. 본 연구는 김기홍(2019)의 척도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 문제해결역량을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으며, 핵심역량의 요인별 신뢰도는 대인관계역량 .867, 정보통신역량 .774, 문제해결역량은 .801로 나타났으므로 Table 2에서 볼 수 있다.

Table 2. University students' core competencies

Variable name	Factor name	Number of questions	Item composition
University core	competencies Interpersonal competency	8	1~8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8	9~18번
	Problem solving capability	18	19~34번
	Total	34	
Total		All 3 factors	

### 3.4 자료처리방법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평균 차이 검증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Table 3과 같이 살펴보면, 남 20명(11.7%), 여자 151명(88.3%)로, 20-30대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학 위치는 경기도 119명(69.6%), 전라도 22명(12.9%), 서울 14명(7.6%), 인천 9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사회계열 94명(56.3%), 인문계열 34명(20.4%), 공과계열 23명(13.8%) 순으로, 학년별로는 4학년 104명(60.8%), 3학년 37명(21.6%), 휴학 11명(6.4%) 순으로, 전체 표본수는 171명이 표집되었다.

Table 3. General matter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20	(11.7)
	female	151	(88.3)
age	Under 20-30	171	(100.0)
University location	Seoul	13	(7.6)
	Gyeonggido	119	(69.6)
	Incheon	9	(5.3)
	Gangwondo	6	(3.5)
	Jeollado	22	(12.9)
	Other	2	(1.2)
Major	Humanities	34	(20.4)
	Social	94	(56.3)
	Nature	10	(6.0)
	Department of Engineering	23	(13.8)
	Medicine	2	(1.2)
	Arts and Physical	4	(2.4)
grade	1 Grade	10	(5.8)
	2 Grade	9	(5.3)
	3 Grade	37	(21.6)
	4 Grade	104	(60.8)
	Leave of absence	11	(6.4)
	Total	171	(100.0)

### 4.2 일반적 사항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차이

일반적 사항에 따른 코로나 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대학 위치, 전공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재학 중인 경우보다 휴학의 경우 상

대적으로 낮은 대학생활적응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코로나 이후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Table 4. Differences in University life adaptation based on general.

category	Pre-Corona University life adaptation		F/t(p) scheffe	post-Corona University life		F/t(p) scheffe
	M	SD		M	SD	
gender	male	3.50	.24	3.17	.39	1.234* (.039)
	female	3.64	.51	2.99	.61	
University location	Seoul	3.30	.65	2.93	.56	1.589 (.153)
	Gyeonggido	3.66	.49	2.97	.63	
	Incheon	3.76	.43	2.70	.23	
	Gangwondo	3.56	.18	3.20	.26	
	Jeollado	3.57	.41	3.27	.50	
	Other	3.52	.00	3.64	.00	
Major	Humanities	3.64	.68	3.17	.70	1.101 (.362)
	Social	3.70	.45	2.97	.62	
	Nature	3.43	.30	2.97	.25	
	Department of Engineering	3.50	.27	2.96	.38	
	Medicine	3.52	.00	3.64	.00	
	Arts and Physical	3.56	.60	2.58	.58	
grade	(a)1 Grade	3.62	.25	2.84	.32	3.194* (.015) a,b,c,d,e
	(b)2 Grade	3.57	.20	3.24	.54	
	(c)3 Grade	3.62	.47	3.17	.70	
	(d)4 Grade	3.68	.50	2.97	.59	
	(e)Leave of absence	3.14	.51	2.80	.16	

\*  $p < .05$ , \*\*  $p < .01$ , \*\*\*  $p < .001$

### 4.3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

#### 4.3.1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활적응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이 3.83점, 정서적 적응 3.68점, 대학에 대한 애착 3.62점, 학업 적응 3.5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대학생활적응은 3.62점이다.

세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나가고 있었다.'가 4.17점,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했었다.' 4.05점,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4.0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에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의 경우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Table 5에서 볼 수 있다.

**Table 5.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students Pre Corona,**

	Item	M	SD
Sub-factor	Academic adaptation	3.55	0.75
	Social adaptation	3.83	0.56
	Emotional adaptation	3.68	0.71
	Physical adaptation	3.43	0.53
	attachmentfor college	3.62	0.66
Total	University life adaptation (Total)	3.62	0.49

### 4.3.2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적응이 3.07점, 대학 생활에 대한 애착 3.06점, 신체적 적응 3.0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대학생활적응은 3.01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주거 형태에서 잘 생활해나가고 있었다.' 3.88점, '나는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했었다.' 3.72점, '나는 식욕이 좋았다.' 3.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의 경우 1.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Table 6에서 볼 수 있다.

**Table 6.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students Post-Corona**

	Item	M	SD
Sub-factor	Academic adaptation	2.92	.84
	Social adaptation	2.96	.64
	Emotional adaptation	3.07	.90
	Physical adaptation	3.03	.75
	attachmentfor college	3.06	.79
Total	University life adaptation (Total)	3.01	.59

### 4.3.3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 비교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 3.55점, 이후는 2.92점으로, '사회적 적응'은 코로나 이전 3.83점, 코로나 이후 2.96점으로, '정서적 적응'은, 코로나 이전 3.68점, 코로나 이후 3.07점으로, '신체적 적응'은 코로나 이전 3.43점, 코로나 이후 3.03점, '대학에 대한 애착'은 코로나 이전 3.62점, 코로나 이후 3.06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이전 3.75점, 코로나 이후 2.81점으로,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교우관계' 또한 코로나 이전 3.89점, 코로나 이후 2.7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학업성적'도 코로나 이전 3.50점, 코로나 이후 3.1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와 '나는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 등의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낮은 대학생활적응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Table 7에서 볼 수 있다.

**Table 7. Differences between Pre Corona Post-Corona University Students and University Adaptation Areas**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Academic adaptation	before	3.55	.75	8.695***	.000
	after	2.92	.84		
social adaptation	before	3.83	.56	14.196***	.000
	after	2.96	.64		
Emotional adaptation	before	3.68	.71	10.023***	.000
	after	3.07	.90		
physical adaptation	before	3.43	.53	6.593***	.000
	after	3.03	.75		
attachment to a university	before	3.62	.66	8.189***	.000
	after	3.06	.79		
Adaptation to college life (Total)	before	3.62	.49	13.381***	.000
	after	3.01	.59		

\*  $p < .05$ , \*\*  $p < .01$ , \*\*\*  $p < .001$

## 4.4 핵심역량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 적응

### 4.4.1 핵심역량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역량 4.02점, 문제해결역량 3.60점, 정보통신역량 3.5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심역량 평균점수는 3.6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나는 조별 활동 수행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4.29점, '나는 동창 및 학과 동기간의 네트워크이 중요하다' 4.23점,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



4.19점, '나는 조별 활동 시 조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한다' 4.0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의 원리와 절차를 확인해보는 편이다.'의 경우에는 2.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8.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ies among college students**

category	M	SD
Interpersonal competence	4.02	.4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3.55	.55
Problem Solving Capacity	3.60	.52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Total)	3.69	.43

대학생활적응 및 핵심역량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에 있어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60].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의 분포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 비율의 상대 정도를 의미한다. 음의 왜도는 꼬리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려있거나 중간에 적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양의 첨도는 자료가 평균 부근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말한다[61]. Curran, West와 Finch(1996)에 의하면 왜도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62]. 본 연구의 응답 자료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의 경우에 대학생활적응 왜도값 최소 -1.463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사회적응 변수로 .017로 나타났다. 첨도의 경우에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응의 경우 최소값 -.586, 최대값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적응 5.88점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Table 9에서 볼 수 있다.

**Table 9. Verifica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pre-Corona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3.5462	.74890	-.713	.679
social adaptation	3.8327	.55887	-.634	1.752
Emotional adaptation	3.6819	.70982	-.949	1.673
physical	3.4281	.53195	-.434	1.582

post-Corona college life	adaptation attachment to a university	3.6234	.66078	-.841	1.870
	the whole adaptation of college life	3.6225	.48842	-1.463	5.884
	Academic Adaptation	2.9158	.84152	-.240	-.168
	Social Adaptation	2.9579	.64213	.017	-.586
	Emotional Adaptation	3.0749	.89654	-.106	-.387
	Physical Adaptation	3.0304	.75273	-.130	.082
Core competencies of the university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3.0632	.79216	-.566	.110
	Total adaptation of college life	3.0084	.59201	-.281	.437
	Interpersonal competence	4.0234	.46633	-.186	.11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3.5538	.54689	-.777	1.371
Problem Solving Capacity	3.6034	.52112	-.137	.227	
All of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university	3.6877	.43352	-.445	.738	

**4.4.2 핵심역량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

핵심역량과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Table 10과 같이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학업 적응'이  $r=.246$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 핵심역량과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사회적 적응'이  $r=.243$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p<.01$ ), '대학에 대한 애착'은  $r=.175$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 다른 요인들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학업적응의 경우 핵심역량 하위변인 '정보통신역량'이  $r=.363$ , '문제해결역량'  $r=.210$ 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p<.01$ ). '사회적 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 과 상관관계  $r=.210$ 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p<.01$ ). '정서적 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 '문제해결역량' 과 상관관계  $r=-.158$ 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p<.05$ ), 다른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 '정보통신역량'  $r=.279$ , '문제해결능력'  $r=.228$ 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 '정서적 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 과 상관관계  $r=-.211$ 로 유의

Table 10.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in the Pre-Corona and Post-Corona Period

		1-1	1-2	1-3	1-4	1-5	1	2-1	2-2	2-3	2-4	2-5	2	3-1	3-2	3-3	3
Pre-Corona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1															
	social adaptation	.385**	1														
	Emotional adaptation	.314**	.607**	1													
	physical adaptation	.345**	.377**	.605**	1												
	attachment to a university	.574**	.648**	.524**	.335**	1											
	the whole adaptation of college life	.716**	.781**	.799**	.676**	.820**	1										
post-Corona University life	Academic adaptation	.294**	.050	.261**	.038	.089	.210**	1									
	social adaptation	.075	.105	.252**	.127	.094	.173*	.490**	1								
	Emotional Adaptation	.264**	.213**	.535**	.354**	.163*	.406**	.499**	.495**	1							
	Physical Adaptation	.219**	.360**	.467**	.284**	.228**	.409**	.269**	.438**	.636**	1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222**	.008	.324**	.164*	.252**	.268**	.589**	.472**	.506**	.155*	1					
	Total adaptation of college life	.295**	.195*	.496**	.262**	.220**	.396**	.768**	.744**	.849**	.660**	.730**	1				
Core competencies of the university	Interpersonal competence	.003	.210**	-.040	.014	.092	.066	-.133	.053	-.211**	-.180*	-.167*	-.181*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353**	.030	-.073	.053	.100	.132	.136	.279**	.082	-.127	.327**	.179*	.373**	1		
	Problem Solving Capacity	.201**	-.058	-.158*	-.058	.088	.014	.090	.223**	-.147	-.228**	.171*	.017	.456**	.661**	1	
	All of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university	.246**	.032	-.126	-.010	.110	.073	.068	.243**	-.106	-.222**	.175*	.030	.650**	.839**	.927**	1

\*  $p < .05$ , \*\*  $p < .01$ , \*\*\*  $p < .001$

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p < .01$ ). 또한 '신체적 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 '대인관계역량'과  $r = -.180$ ( $p < .05$ ), '문제해결역량'과  $r = -.228$ ( $p < .01$ )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에 대한 애착'의 경우, '대인관계역량'  $r = -.167$ ( $p < .05$ ), '정보통신역량'  $r = .827$ ( $p < .01$ ), '문제해결역량'  $r = .171$ ( $p < .05$ )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4.4.3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통하여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Table 11처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 1단계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사항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명력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모형 2단계에서는 대학핵심역량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 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12와 같이 하위변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ta=.219$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0$ ). 문제해결역량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정보통신역량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역량이나 문제해결역량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역량의 경우에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에서 정보통신역량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Corona'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t	P	VIF
	B	SE	$\beta$			
(constant)	3.452	.240		14.412	.000	
1 gender	.178	.120	.118	1.480	.141	1.076
grade	-.046	.042	-.086	-1.088	.278	1.076
Rsquared (modified)=.016(.004), F=1.354(.261)						
(constant)	3.161	.383		8.249	.000	
gender	.174	.120	.115	1.441	.152	1.078
grade	-.049	.043	-.092	-1.159	.248	1.083
2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ies	.084	.087	.075	.972	.332	1.010
Rsquared (modified)=.047(.018), F=1.613(.159)						

\*  $p<.05$ , \*\*  $p<.01$ , \*\*\*  $p<.001$

Table 12. The Effects of Sub-variants on Corona'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VIF
	B	SE	$\beta$			
(constant)	3.452	.240		14.412	.000	
1 gender	.178	.120	.118	1.480	.141	1.076
grade	-.046	.042	-.086	-1.088	.278	1.076
Rsquared (modified)=.016(.004), F=1.354(.261)						
(constant)	3.079	.395		7.787	.000	
gender	.177	.121	.117	1.463	.145	1.107
grade	-.052	.043	-.097	-1.212	.227	1.111
Interpersonal competence	.054	.093	.052	.583	.560	1.376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195	.091	.219	2.141*	.034	1.805
Problem Solving Capacity	-.144	.100	-.154	-1.444	.151	1.958
Rsquared (modified)=.047(.018), F=1.613(.159)						

#### 4.4.4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핵심역량이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13과 같이 살펴보면,  $\beta=.030$ 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p>.05$ ). 이러한 결과를 하위변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14과 같이 살펴보면,  $\beta=-.268$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 '정보통신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ta=.332$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 이는 '대인관계역량'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이 낮고, '정보통신역량'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Table 13. The Influence of Core Competencies on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in the Corona Period**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Non-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E	$\beta$		
(constant)	2.856	.390		7.325	.000
Core competencies of the university	.041	.105	.030	.394	.694

Rsquared (modified)=.001(.005), F=.155(.694)

**Table 14. The Effects of the Sub-variants on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in the Post-Corona Period**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VIF
	B	SE	$\beta$			
(constant)	3.428	.412		8.329	.000	
Interpersonal competence	-.340	.105	-.268	-3.240***	.001	1.27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359	.106	.332	3.383***	.001	1.79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091	.116	-.080	-.783	.435	1.955

Rsquared (modified)=.106(.090), F=6.63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5.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 핵심역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활적응지원을 위한 대학 시스템구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학업적응'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교수 및 선 후배, 동기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접촉의 제한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비대면 상황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적응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사회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낯선 비대면 수업은 학업 적응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들은 장비와 웹 장애 문제,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늘어난 과제에 대한 부담 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는 최현실(202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수들의 적절한 대처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63] 언택트 수업에서의 학생의 학습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난(2021)은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64], 이영석(2020)은 언택트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대면 수업과 유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65]. 이광재, 이영주(2017) 등은 언택트 수업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66].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최적 융합 운영, 학생의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 대학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겸하는 플립드러닝과 블렌디드러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언택트 상황에서의 사회적 교류 및 학업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역량', '정보통신역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중 '나는 조별 활동 수행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나는 새로운 기술이 오면 그것의 원리와 절차를 확인해보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점의 확장,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유연성 증진, 다양한 신기술 습득을 위한 과정 개설 등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김정화의 연구 결과(2010)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67].

셋째, 핵심역량요소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 코로나 시대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에 대한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역량과 정보통신역량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인관

계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비대면 위주의 대학환경에서 다양한 집단과의 활발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변화된 대학환경 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서정(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68]. 그러므로 대학 차원에서 비대면 교류를 촉진하는 전략과 비대면 교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대학생활적응 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이후 대학생활적응에서는 '학업적응'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역량', '정보통신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나는 새로운 기술이 오면 그것의 원리와 절차를 확인해보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이후, 핵심역량은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적응'은 핵심역량 하위변인인 '정보통신역량', '문제해결역량'과, '대학에 대한 애착'은,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역량', '문제해결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역량'이 '사회적응'이나 '대학에 대한 애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정보통신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달리, 학습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생활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술활용능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역량, 학업적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역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사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확대 및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M. Kim. (2020).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6), 1091-1100.
- [2] R. W. Baker & B. St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3] S. T. Moon. (2006). A predictive model for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rough data mining analysis. *Agricultur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8(2), 247-267.
- [4] E. H. Erikson. (1994).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5] K. J. Kwon. (2018).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nger rumina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6] S. H. Soo. (2019).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design future talent core competencies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Design Culture*, 25 (2), 305-315.
- [7] L. Y. Park & M. H. Yang. (2019). The intelligent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self-regulated learning on college life adaptation.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Journal*, 9(4), 89-97.
- [8] M. J. Jo & S. L. J. (2019).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Liberal Arts Education Research*, 13(4), 207-233.
- [9] M. S. Kang & M. H. So.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y Assessment: Based on the Case of S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21(4), 236-247.
- [10] J. Y. Park. (2020).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 core competencies (K-CESA) on creative fusion competenc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aching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Industrial Society*, 21(5), 206-215.
- [11] L. Y. Park & M. H. Yang. (2019). The intelligent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 self-regulated learning on college life adaptation.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Journal*, 9(4), 89-97.
- [12] W. T. Keeton. (1967). *Biological science*. New York : W.W.Norton and company.
- [13] M. S. Lee, H. S. Choi & E. M. Yeon.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potential personality traits based on 5 factor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20(3), 71-81.
- [14] S. J. Kwon. (2018).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nger rumination of college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3(3), 1-19.
- [15] J. H. Kim. (2007). *College life adaptation of a college student's child who is an alcoholic*. 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16]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17]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Executive Summary*. Paris : OECD.
- [18] S. Y. Jang. (2016). *Analysis of the impact of college life on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9]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General Theory of Curriculum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otice of Education*, 2015-74 [Attachment 1].
- [20] Y. Son, U. Im, J. H. Min, H. J. Yoon & A. Han. (2017). *A Study on Support an Utilization of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K-CESA)*. Korea :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21] Korea Collegiate Essential Assessment. (2021). <https://www.kcesa.re.kr/index.do>
- [22] K. H. Kim. (2019).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commitmen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ore competencies*. doctoral dissertation. Daedun University, Pocheon.
- [23] E. K. Oh & H. R. Jang. (2005).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207-231.
- [24] S. S. Kim. (1998).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and self-concept on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5] S. K. Kim. (2003). A study on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of college freshmen. *Korean Youth Society*, 10(2), 215-237.
- [26] H. W. Kim.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type and career decis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7] Y. H. Park & E. M. Park.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nd self-respec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e of School Life Guidance*, 26.5-26.
- [28] E. W. Lee. (2005).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9] B. Choi. (200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Adaptability Beliefs on Adaptation and Stress Control in College Lif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0] J. H. Ha. (2008). A qualitative study of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473-496.
- [31] J. S. Lee. (2010).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2] H. J. Jin & Y. S. Seo. (2010).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liz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freshme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2), 385-411.
- [33] J. S.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f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 [34] J. H. Kim.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ollege student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5] S. K. Ch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f freshmen in nursing colleg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Health and Medical Science Research*, 2(1), 63-71.
- [36] J. A. Park. (2019).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major suitabil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7] J. S. Lee. (2010).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8] R. Se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tolerance for academic failure, self-accepta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9] H. W. Kang & G. O. Hong. (2010).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3, 133-144.
- [40] J. Y. Ko & K. S. Jung.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re Competenc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 H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ing Education*, 11(2), 475-504.
- [41] K. H. Kim.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e Competency Analysis and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uvenile research*, 23(1), 429-449.
- [42] M. S. Jin, Y. M. Son & H. J. Joo.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e Competency Diagnosis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Institute of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29(4), 461-486.
- [43] I. S. Choi & E. J. Joo.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Youth Studies*, 23(6), 145-173.
- [44] R. I. Kim. (2018). Effectiveness of action learning-based communication capability enhancement program. *Korea Data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 29(2), 453-465.
- [45] H. J. Yoon, Y. S. Jung & S. S. Gong. (2018). Development of customized comparison and program based on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 13(5), 293-321.
- [46] P. G. Baek. (2013). The Relationship 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Key Competence Levels and Individual Vocabulary. *Korean Society of Education*, 7(3), 349-387.
- [47] M. S. Jin, Y. M. Son & H. J. Joo.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e Competency Diagnosis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ing Administration*, 29(4), 461-486.
- [48] J. I. Lee. (2012). A study on the type of admission system and the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ducation*, 44(2), 73-96.
- [49] H. J. Yoon. (2018). Development of customized comparison and program based on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Core Competency Education Association*, 4(1), 213-241.
- [50] A. Kim & B. S. Lee. (2003). Analysi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cor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30(1), 367-392.
- [51] Y. M. Baek & S. H. Ka. (2012).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recognized core competencies and school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Youth Studies*, 19(7), 165-189.
- [52] S. Y. Jang. (2016).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college life on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53] J. I. Lee & J. H. Kim. (2012).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competenci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Occup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227-246.
- [54] L. Park. (2016). Presented emotional and self-identification capabilities as key competencies that affect university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55] M. S. Kang, Y. S. Lee, Y. R. Kim, C. H. Son, H. K. Kim, J. S. Baek. & S. M. Ahn. (2020). The influence of the new college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in the remote education of Covid-19. *Korea Digital Policy Association*, 18(10), 315-323.
- [56] M. S. Kang, Y. S. Lee, Y. L. Kim, C. H. Son, H. K. Kim & J. S. Baek. (2021).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to College Freshmen in Post-Corona 19 Situation : Digital Curation Calendar. *Korean Association of HCI*, 1(2021), 909-916.
- [57] J. M. Lee.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loneliness and overuse of YouTube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in remote education of Covid-19.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20(7), 342-351.
- [58] Y. J. Lee. (1999).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Career Planning of Local Students in Seou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59] K. H. Kim. (2019).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immersion, academic self-efficacy, career-determining self-efficacy, and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ocheon.
- [60] D. U. Kim.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akhyeonsa
- [61] B. R. Bae. (2011). *AMOS 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rinciples and Practices*. Cheongram.
- [62] P. J. Curran, S. West &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63] R. T. Choi. (2021).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rona 19. *Korean Society for Liberal Education*, 15(1), 273-286.

- [64] L. Lee. (2021).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iberal arts classes at universities using online classes and online feedback in the Corona era. *Korean Society for Liberal Education*, 15(1), 259-272.
- [65] Y. S. Lee & J. W. Jo. (2020). A strategy establishment plan for data-based learning management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74-776.
- [66] K. J. Lee & Y. J. Lee. (2017). "Trends of Interaction Analysis Methods among Learners i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in Educational Information Media Research", *Educational Information Media Research*, 23(1), 57-81.
- [67] J. H. Kim. (2010).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E-Tutor's Learning Support on the Sub-Variables of Teaching Reality and Learning Reality in an E-Learning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68] S. J. Lee. (2013). *The Relationship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Gur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nsan.

이 경 아(Kyung A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6년 2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 임상수퍼비전, 강점기반 사례관리, 임파워먼트
- E-Mail : kyung@swc.ac.kr

손 희 원(Hee Won Son)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과(문학박사)
- 2013년 8월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복지, 임상사회복지

- E-Mail : choicney@swc.ac.kr